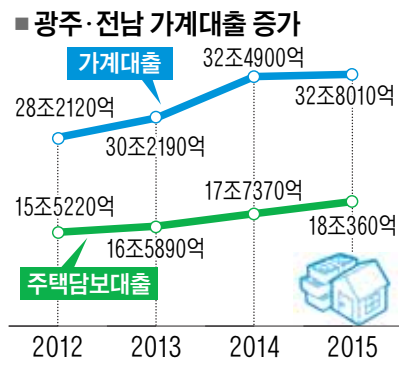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 급증 가계빚 '위험 수위'

광주·전남 33조원 ... 서민경제 붕괴 '뇌관' 우려

광주·전남 지역 경기회복세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계빚'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 위험 수위에 육박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금리 하락과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어 있어 자칫 서민경제 붕괴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전국의 가계신용 잔액은 109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1087조7000억원)보다 11조6000억원(1.1%)이나 늘었다. 국민 한 사람 당 평균 2170만원의 빚을 짊어지고 사는 셈이다.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으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확산으로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가계대출도 지난 3월 말 기준 32조원을 넘기며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광주·전남 가계대출은 32조801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4%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9.3%를 웃도는 수치다.

다만 가계가 빚을 갚을 만한 여력이 되는지를 따지는 재무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과 가구별 금융 자산(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낮고, 저신용 대출 비중 역시 하락해 단계적으로 가계대출 부실 우려는 낮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가계대출은 2012년 12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3년 7.1%, 2014년 7.5%로 각각 전국 평균인 4.1%, 8.5%와 비교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2715억원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서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서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져 가계와 지역경제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특히 최근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면 위험도도 높아지게 된다.

지역의 가계대출 고공행진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부동산가격 상승, 저금리, 부동산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애기도 많다. 그런 가운데 급증하는 지역 가계 빚이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의 '지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채규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경제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말 1조1480억원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은 올 들어서는 3월까지 벌써 2990억원 늘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고 있는 셈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상봉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차장은 "지난해 광주를 비롯한 지역의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로, 5배 정도 높았다. 지난해 하반기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6월 8일(월)~19일(금)
문의: (062) 605-1115

메르스 첫 감염자와 접촉
경기도서 환자 1명 사망 ▶2면

선거캠프 관계자 자녀·부인도 공직 꺾차

'현대판 음서제' 전락
무기 계약직 공무원

보은·청탁 대가 채용해 슬그머니 무기계약직으로 신분 바꿔
입소문 퍼져 감사에 적발돼도 시·군에만 경고 ... 비리 반박

김 '논공행상' 대상 변질

탐사 기획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이하 기간제)가 시장·군수 등 단체장, 고위공무원의 전유물로 전락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잡음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 서류 전형이나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채용 시스템 자체가 허술해 관계자 처벌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단체장은 물론 선거 캠프 관계자의 자녀, 부인, 친인척은 물론 지역 출신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후로 전남 22개 시·군에서만 무려 576명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채용 또는 신분 전환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0년부터 6년간 821명이 채용된 점을 감안하면 2013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년간 70%가 집중됐다.

입소문으로 주변에 알려져 상위기관의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해당 시·군이 경고를 받는데 그치고 있어 이같은 불투명 채용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전남도가 감사를 벌인 결과 무안군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2명의 기간제 공무원이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행정지원과에 이력서만 제출한 뒤 합격했다. 2014년 무안군의 기간제는 183명으로, 2013년 140명에서 무려 43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한 점은 또 있다. 이 무렵 채용된 기간제 공무원 2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무기 기간제로 신분이 바뀌었다. 전남도 감사실이 이들의 신분을 조사한 결과 고위직의 선거와 관련 있는 사람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 유력자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기간제가 선거 보은이나 청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제가 된 22명에 대해 광주일보가 추적한 결과 각종 선거에서 선출된 인사의 지역 조직관리 총책, 지역협의회장, 마을이장, 고위직 측근, 고위공무원 등과 관련이 있었다. ▶3면으로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다랑이는 모내기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이르는 이른 더위가 찾아오자 농부들이 모내기를 서두르고 있다.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를 보인 1일, 화순군 만연산 아래 다랑이는에서 농부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내무기자 mjna@kwangju.co.kr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오늘 여수에서 출범

전남도·GS그룹 공동 추진

전남도와 GS그룹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2일 여수에서 출범한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과 함께 139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첨단 융복합 농수

축산업과 바이오케미컬 신소재 관련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을 유도하게 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 여수시 덕충동 GS칼텍스밸류센터에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출범하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는 부지 1만2998㎡, 건물 2370㎡ 규모의 기존 GS칼텍스교육센터에 최첨단 시설을 도입해 구축한 것으로 전남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본격적 역할을 하게된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GS그룹 주력 사업과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3대 전략산업으로

첨단 융복합 농수축산업, 바이오케미컬 신소재, 원력 진료 및 교육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139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물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센터가 창조경제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남의 새로운 활로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생명의 땅 전남!
밥맛·생산·품질 분야 종합평가에서 올해의 최고쌀로 선정된

2015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제17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
★ 전남쌀 9년 연속 수상 ★

전라남도 Jeolla Namdo